

SERMON 19 February 2017

레위기 19:1-2, 9-18

마태복음 5:38 - 48

저는 여러분들이 자랄 때 어떠한 "do's" 하는 것 들과 "don'ts" 하여서는 안 되는 것 들과 자라났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입에 음식물을 가득 채우고 이야기 하지 마라", "방해 하지 마라", 그리고 더 많은 것 들이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아마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을 것 입니다. 여기 기본적인 것 중 대부분은 세대를 거쳐서 전해지고 있고 또는 우리는 그렇다고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하여 성경 본문을 통해서 어려운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꽤 많은 하지 마라는 "don't"의 행동들을 말입니다. 우리는 법이 얼마나 안내를 위해서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중요한지를 압니다. 우리가 항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몇몇의 진술 뒤에 놓인 문화입니다. "눈에는 눈 그리고 이에는 이" 는 상처에 대한 반응의 비례가 맞지 않고 종종 극대화 된 사회에서 나옵니다. 눈에는 눈이 아니라 눈에는 죽음. 살인 사건에 대응한 부족 살인 사건. 다른 말로 하자면 "눈에는 눈" 이라는 말은 중간의 반응입니다. 그것은 균형 잡힌 반응을 허용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이것은 수세기의 패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그가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야기 한다 ‘사악한 사람에게 저항 하지 마라’ “.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꽤 혁명적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마하트마 간디에게 영향을 줍니다, 간디는 만약 우리가 눈에는 눈으로 대응한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눈이 멀 것입니다. “나쁜 사람에게는 저항하지 마라. 만약 어떤 사람이 너의 오른쪽 뺨을 치면, 그들에게 또한 다른 뺨도 내 주어라.” 자 이것을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른손 잡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의 오른쪽 뺨을 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손등으로 후려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손등으로 사람을 치는 것 그것은 특별한 모욕으로 여겨졌고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을 비하 하는 것 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서는, “ 거기에 서 있어라. 그러면 그들은 당신을 동등하게 그들의 손바닥으로 때린 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공평하게, 하찮게 대우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는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은 존엄합니다.

어떤 사람을 때린다는 논리를 알아본 다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 법칙에 아래에서 관대한 삶을 살았는지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사랑으로 더 많이 한다는 것에 관한 것 입니다: 외투를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셔츠도 주라는 것입니다, 두 마일을 가라는 것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상세한

부분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 우리가 화를 보았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는 태도에 관해서 더 신경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초로 하는 핵심적인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들은 법규들의 책임 레위기로부터 들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명령문들, 하지 마라는 단어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궁금합니다. 거룩함은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과 연결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라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함이 어떤 것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의 할머니의 세대 때는 적어도 거룩함 또는 신앙심은 밝음, 순수함, 심지어 청결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빅토리아 시대의 사교 방식이었고 그것은 "정확한" 자세를 취하기 위해 피아노의 다리를 덮고, 어쨌던 다리에 의해서 더럽혀 지지 않습니다. 어쨌던, 모든 거룩함의 이야기는 우리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지배적인 존경심이나 우리가 스스로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결국, 매주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의 필연적인 진리에 굴복하는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거룩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법칙을 따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해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혁명적인 가르침인 "눈에는 눈" 등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완벽 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완벽하심이라." 저는 아주 많은 시간을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목사님들과 목회자들과, 많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이 자리잡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모면할 구실을 찾을 수 없음으로 인해 지칠 줄 모르는 상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굴복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단지 실패의 느낌만을 포함합니다. 저는 또한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완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맞을까요? 저는 그것이 여러분이 이해하는 예수님과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과 맞아 들어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부분은 "완벽"이라는 단어의 번역과 함께입니다. 그것은 즉각적으로 도달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완벽한 사람과 관련하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Beirut 이라는 지역에, 클리브와 저는 몇몇 여인들이 있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빈틈없는 옷을 차려 입고, 보석으로 장식하고 머리도 또한 완벽했습니다. 클라이브는 제가 어색한지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완벽함은 내적인 자질보다는 외모와 관련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인이 바비 인형처럼 생긴 외모에 집착하여 많은 성형 수술을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무엇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벽한 자유를 위해 우리가 제공하는 즐거운 자유와 추구하는 모든 연결 고리를 이해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여 졌다는 것을 아는 것,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이 훨씬 더 가까운 복음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결점이 있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확실하게 우리는 "완벽"의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더 가까운 단어는 "완료하다" 또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완전함은 어디에 놓여지나요? 그것은 또한 "성숙함"의 의미를 가집니다, 바울이 아기들이 우유를 요구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 할 때 사용한 단어의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삶의 고통들 없이는 삶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성함과 완벽함, 그리고 우리 인간성의 긴장 사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와 마태복음 둘 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실현 가능성과 연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법을 가지 시고 크게 활짝 열어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범함과 깊이, 높이를 이해하는 것을 도와 주십니다. 이곳은 지상 낙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먼 곳에서 열반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리스도안에서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비전에 열려 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이 이 땅에 전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구간에 여물통이 사람들에게 울러 퍼지는 이미지가 아닐까요, 심지어 믿음이 없음에도 말입니다? 켈트 사람들의 영적인 감정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있고 저는 이것이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거룩함과 삶의 모든 면에서 성인들의 존재를 성 육신적 이해와 관련이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사이에는 큰 분열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불쏘시개와 같은 기도 소리는 “나는 마리아가 하신 것처럼 난로의 불 붙듯 일어날것입니다. 신부와 마리아 에워쌌의 불과, 바닥과, 그리고 온 집에. 누가 바닥에 있나요? 요한, 베드로 그리고 바울. 누가 나의 침대에 있나요? 아름다운 신부 그리고 그녀의 수양자녀. 누가 나의 잠을 보고 있나요? 사랑하는 마리아와 그녀의 새끼 양. 누가 저 가까이 있나요? 태양의 왕, 그 자신입니다. 누가 저의 머리 뒤에 있나요? 무한 하신 생명의 아들.” 또는 이 축복은 어떤가요: “바람을 위한 벽과 비를 위한 지붕, 불을 쬐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축배를 들고, 당신의 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분명 다른 시기와 세대인 천사들의 존재가 일상 생활의 일부였을 때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갈라 놓을 수 없는 것을, 그리고 삶은 그 안에서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 있고, 어쩌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무언가를 잃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현대 켈틱 축복과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되신다는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 전체, 완전함은 하나님의 인식 안에 두는 것 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관대함을 베푸는 모든

존경심과 위엄을 제공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적도 이웃과 같이 동등하게 사랑하라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도처에 있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외침입니다. 버락 오바마는 카이로에서 전쟁을 끝내기보다는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더 쉽다고 연설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보는 것 보다 더 쉽습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것들을 찾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다른 점에 관해서 보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쉬운 길이 아닌 올바른 길을 택해야 합니다. 모든 종교의 중심에 적용되는 한 규칙이 있습니다 - 남이 나를 대접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남을 대접하라. 이 진리는 국가와 민족 들을 초월 합니다; 기독교, 무슬림 또는 유대교 모든 종교를 말입니다. 그것은 문명의 요람에서 박동하여 여전히 수십억의 심장을 뛰게 하는 믿음입니다."

거룩 하라,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거룩 하신 것처럼. 거룩한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항상 우리자신을 두는 것 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그 전체가 우리가 제안하는 것과 가능한 것이란 것을 다시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 우리가 서로 공동체로서, 세계 안에 나라들로서 창조물과 연관되는 것 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평화의 방법이며, 오바마가 연설한 "문명의 요람에서 맥박이 여전히 수백만의 심장을 뛰게 하는 믿음" 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완벽, 거룩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결코 이 거룩함을 모든 사람이 거룩하고 완벽함으로 세상에 적용 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일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거룩함 입니다. 어쩌면, 결국, 거룩함은 사랑 안에서 사는 소명 일수도 있습니다.